

태풍에 돼지열병...전남 농가 '초비상'

수확 앞둔 전남 남해상 관동
낙과·벼 쓰러짐·양식장 피해
가을태풍 지나가면
돼지열병 대대적 소독 나서야

제13호 태풍 '링링'에 이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22일 오후 늦게 수확을 앞둔 전남 남해상을 지나가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남도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지반이 취약해진다 강풍에 의한 낙과, 벼 쓰러짐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앞전 데 달친 격이다. '타파'가 지나간 뒤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걱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6면>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타파'는 이날 낮 동안 제주도 동쪽 바다를 지나 밤사이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상으로 나갈 전망이다. 태풍의 길목 주변인 제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 '타파'는 전날까지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했다.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5m(시속 126km)다. 초속 15m 이상 강풍이 부는 반경이 350km에 달한다.

시간대별 예상 경로를 살펴보면 22일 오후 6시까지 여수 남남동쪽 약 130km 바다를 지나 오후 9시까지 부산 남쪽 약 70km 바다를 지나간다. 1시간 후인 오후 10시 부산 동남쪽 50km 거리에 있을 때가 부산에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다.

이날 오후부터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후 2시 52분께 곡성군 한 초등학교 체육관의 통유리가 파손되면서 성인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이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신안 천사대교 통행을 제한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 정청실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실국장, 22개 시·군 부시



폭우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22일 오후 여수 해상으로 접근하면서 비바람이 거세지자 여수 총무동 한 거리의 노점상인들이 과일박스를 서둘러 비닐로 덮고 있다. /여수=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17호 태풍 '타파' 대처사항 점검 영상회의를 갖고 피해 최소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등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가을 수확기인데 태풍 '링링'의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고, '링링' 때보다 체감 강풍의 강도가 매우 커,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또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 산사태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가동 점검 및 수산증양시설 정전 발생 시 비상 발전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

시했다. 전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새벽 4시부터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전 실과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 기상특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근무를 강화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태풍이 지나간 뒤 양돈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독려했다.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22억 원을 지원해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거점소독 시설 운영비, 소독약품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가축 질병 정정지역 유지를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타파'가 지나간 뒤에는 지금까지 방역이 무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점에서 대대적인 소독에 나서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관련 "양돈 농가와 지자체, 농협에서 비가 그치면 곧바로 소

독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지난 17일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21일 밤 11시 기준으로 파주와 연천 일대 7개 농장에서 돼지 1만3643두가 살처분·매몰됐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전남에서는 공공시설 9건, 사유시설 34건 파손, 벼 쓰러짐 4842ha, 과수 낙과 1203ha, 증·양식시설 5어가 360칸, 어선 36척 반파·침수, 염전시설 18어가 지붕 파손 등 10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바 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은 "제주도와 남부지방, 동해안, 울릉도·독도는 매우 심한 강풍과 호우가 예상된다"며 "월파와 강풍으로 해안과 섬 지역, 해안가 인근 내륙 등에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첫 '시동'

오늘 법인등록증 발급될 듯 ... 공장건립 등 본격 추진

광주시·현대자동차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23일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 짓고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장 건립 등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나선다.

광주시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23일 법원으로부터 법인등록증 발급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법인 등기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회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등기 이후 회사는 대내외적으로 공식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사 및 감사진 선임을 마친 회사 측은 연내 광주 광산구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완성차공장 착공식을 연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 관리직원 공개채용 등 이사회 안건이 정해지는 대로 첫 이사회가 열려 사업 방향성과 당면 업무가 정해질 것"이라며 "회사 주요 임직원들은 공장 건립 전까지 광주시 출연기관이자 1대 주주인 (재)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업무를 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회사 설립 초기 업무 지원을 위해 광주시는 4·5·6급 공무원 각 1명

과 그린카진흥원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업무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회사 측은 우선 관리직원 공채 절차와 함께 공장 설립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18만3000평, 1391억원)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공장부지 매입 후 공장 설계 작업 착수와 함께 공장 인허가를 취득하는 데 주력하고 11~12월께 착공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 9월 공장 설비(생산라인) 설치, 2021년 2월 시운전, 2021년 4월 시험생산, 2021년 9월 양산 체제 돌입 일정을 갖고 있다. 빛그린산업단지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명을 고용하는 계획이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산업은행, 지역건설사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36개 기관·기업 등이 23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로, 회사는 공장부지 매입과 건립, 생산라인 구축 등 사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3454억원을 차입 조달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설치 총력전

전남도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설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와 함께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정경 전남'을 이끄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범행사를 가졌다

전남도는 22일 "지난 20일 한전공대와 연계해 인근 80만평의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최첨단 국가 대형 란드마크 연구 시설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출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 관련 분야 대학 교수, 국제 연구기관 연구원, 방사광이용자 협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관련 분야 학계, 이용자, 설계 및 설치 등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전

문가로 구성됐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숙명여대, 부산대, 서강대, KAIST, GIST, UNIST, 포항공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사)방사광이용자협회,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전문가 36명이다.

이들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전공대와 연계한 최첨단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논의를 개발하며 정책 및 기술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국내 방사광가속기 가운데 성능이 우수한 일부 법인인 경쟁이 치열할 뿐, 이외 모든 부문에서 질 높은 연구 수행을 위해 성능이 우수한 미국 등 외국 가속기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 국내외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단장 인터뷰 ▶ 14면
- 천년 전라도 훈 - 5·18 현장을 걷다 ▶ 18면
- 순흥민 오피스اید? VAR 판정 논란 ▶ 20면

www.jnbada.or.kr

도전과 기회의 땅, 블루이코노미 전남

바다에서 성공하려면 전남어촌으로 오세요

귀어·귀촌 문의전화
전남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 062-220-0581

10월 중(예정) - 3박4일
전남어촌탐구생활

11월 중(예정) - 1박
도시민 전남 어민피다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